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詩經日課』 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金秀炆*

I. 머리말

II. 석정의 『시경』 저술

III. 석정 『시경』론의 특징적 면모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詩經日課』 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석정의 『시경』 관련 저술 양상과 『시경』 인식의 특징을 개관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구체 분석에 있어서는 주석자의 해석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석정의 접근에 특히 주목하였다. 해석학적 각도에서 볼 때, 석정 『시경』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석정은 『시경』학의 맥락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경』 해석의 계승과 변천 과정에서의 맥락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석정은 주자 『시경』 해석의 가치를 ‘獨創’에서보다는 ‘折衷’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주자 『시경』학을 漢代 『시경』학과 대립시키며 그 독창적인 면을 부각하고 다른 면을 배격하는 학문 태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곧 진정한 獨創의 원동력이 전통과 기존설의 정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융합적 ‘折衷’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으로, 석정이 근대 전환 기에도 왜 여전히 전통 학문과 시각을 중시하였는가를 이해하는 데 유효하게 참고될

* 본 논문은 2020년 11월 19일(목) 국립전주박물관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석정 이정직 서거 110주기 학술대회 : 石亭 李定稷 학문과 예술의 학술사적 위상>(장소: 국립전주 박물관)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토론을 맡아주신 선미현 선생님과 소중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수 있다. 둘째, 석정은 『시경』 해석의 타당성 여부와 내원을 세밀하게 추적하려는 면모를 보였는데, 이는 특정 주석가의 해석을 맹신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석정은 해석자(주석자)의 인식 맥락에 초점을 두어 『시경』 해석의 同異를 변별하였다. 주석의 是非, 正誤에 대한 판단보다는, 주석자가 왜 이렇게 주석하였는지에 대한 의식의 흐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시경』 해석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석정 이정직, 시경일과, 시전일과, 『시경』, 해석학

I. 머리말

현재까지 석정 이정직의 『시경』 관련 저술에 대한 연구는 『석정집』에 수록된 「關雎鳴在河之洲說」 1편과 『燕石山房未定藁』에 수록된 『詩經日課』의 일부인 「齊風」 6首에 대한 주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중 소장본 『詩經日課』 三卷을 소수의 연구자가 접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석정의 『시경』론에 관해서는 크게 經學論과 詩論의 각도에서 고찰된 바 있다. 가령 구사회는, 석정이 “방자하고 날카롭거나 부박한 시풍을 버리고 고대 시경의 풍아가지닌 진실하고 넉넉하며 순수한 시정신을 되찾”고자 하였으며 시가 『시경』의 風雅에서 유래하였음을 주장하였다¹⁾고 서술함으로써 석정 詩論에서의 『시경』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시경』학의 각도에서 석정의 『시경』학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두 편이 있다. 심경호는, 석정이 시편의 의미를 개방적으로 보았으며, “『시경』 해석에서 ‘고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의리의 발명’에 목적을 두어,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대한 천착을 버리고, 텍스트가 지닌 의미의 중층성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세 전환기의 조선 경학에 하나의 유력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²⁾ 이 연구는 석정 『시경』학의 특징을 전문적으로 고찰한 첫 연구로 시경학사의 맥락에서 석정 『시경』학의 가치와 의의를 조망하였다. 이승용의 연구는 ‘告往知來의 구현’과 ‘포폄의 시대정신’을 석정 『시경』론의 특징으로 정리하고 「齊風」 6首에 대한 주석과 석정의 시작품에 반영된 『시경』 의식을 연계시켜 석정의 시의식을 조망하였다.³⁾

본고는 기존 연구의 주요 관점을 참고한 기초 위에, 문중 소장본 『詩經日課』 三卷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더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석정 이정직의 『시경』학의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석정의 『시경』 저술 상황을 살펴보고, 해석학적 각도에 중점을 두어 석정 『시경』론의 특징을

1) 구사회, 「석정 이정직 시론의 형성 과정과 문예론적 검토」,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224면.

2) 심경호, 「石亭 李定稷과 『시경』」,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63면.

3) 이승용,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과 시의식」, 『온지논총』 52, 온지학회, 2017.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석정의 『시경』 저술

본 장에서는 석정의 『시경』 관련 저술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본 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석정의 『시경』 관련 저작’에서는 저작과 저작 명칭에 대해 소개하고 ‘『시경일과』의 체제’에서는 문중소장본 『시경일과』의 형식적 체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시경일과』의 『시』설 분석구조’에서는 『시』 해석 내용을 분석하는 서술 구조를 살펴보고 ‘석정의 『시경』 주석 시기와 성격’에서는 석정의 『시경』 저술 시점을 추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元日」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석정의 『시경』 관련 저작

본 절에서는 석정의 『시경』 관련 저술 문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에 앞서, 석정의 『詩經』 주석 三卷은, 標紙題는 ‘詩傳日課’로 되어 있다. 卷題가 ‘詩經日課’이고 『燕石山房未定藁』에 수록된 「齊風」 주석의 卷題도 ‘詩經日課’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표지제와 권제가 모두 석정의 친필이라는 점⁴⁾에서 명칭을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卷題에서 일관적으로 ‘詩經日課’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기존 연구에서 卷題에 의거하여 「齊風」 주석을 ‘詩經日課’로 명명한 점 등을 고려해 ‘『詩經日課』’로 명명하기로 한다. 석정의 『시경』 관련 저술 명칭 및 수록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4) 표지제와 권제가 모두 석정의 친필이라는 점은 박철상 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표 1〉 석정 『시경』 관련 저술 명칭 및 수록 정보

篇名	副題	石亭集 (1923年)	燕石山房文藁	기타 影印·所藏 추가정보
關關雎鳩在河之洲說	-	○	○ (卷八)	『韓國經學資料集成』 영인
詩經日課卷之二	邶一之三	×	×	문중 소장본
詩經日課卷之□	鄘一之四·衛一之五	×	×	문중 소장본
詩經日課卷之□	王 / 鄭	×	×	문중 소장본
詩經日課卷之□	齊一之八	×	○(6首) (別集一)	
詩經註解	-	×	×	「行狀」, 「敍」에 書名만 소개

「關關雎鳩在河之洲說」은 論說類의 단편 논문이고 『詩經日課』와 『詩經註解』는 저서명이다. 문중 소장본 『詩經日課』는 총 3권으로, 「邶風」부터 「鄭風」까지의 주석에 해당하며 『燕石山房文藁』에 「齊風」 6首에 대한 주석이 수록되어 있다. 「邶風」 주석에는 ‘卷二’라는 표기가 있고, 나머지 두 권에는 권수가 명기되지 않았다. 「邶風」의 分卷 상황과 「邶一之三’, 「鄘一之四’, 「衛一之五’ 등의 副題에 의거할 때, 『시경일과』의 分卷 체제는 『詩傳大全』 등에 반영된 『詩集傳』 20권본 계열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⁵⁾

『詩經註解』는 「行狀」이나 「敍」文에 등장하는 저술 명칭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石亭集』 편찬에 참여했던, 석정의 門人 宋基冕(1882~1956)은 석정선생 「行狀」에서 당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 석정의 詩文을 三卷 정도만 추려내 출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편찬 경위를 설명하는 중에, 『詩經註解』 등의 책들은 채 출판하지 못하고 보관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⁶⁾ 이 書名은 金甯漢의 「敍文」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⁷⁾ 서명만 보았을 때는 『詩經註解』가 현재 우리가

5) 본고에서는 「邶風」 주석을 ‘卷二’로 표기한 것을 기준으로, 「鄘風」·「衛風」 주석은 ‘卷三’으로, 「王風」·「鄭風」 주석은 ‘卷四’로 표기하기로 한다.

6) 宋基冕, 『石亭集』 「附錄·行狀」, 「(石亭先生)行狀」, 宋基冕, “若『詩經註解』·『算學傳授』·『詩學證解』·『刊誤精選』·『字音考』·『轉辭活譯』等書二十余冊, 絀於財, 姑藏之.”

7) 金甯漢, 『石亭集』, 「敍」, “公之著述者, 詩文之外, 又有『詩經註解』·『詩學證解』·『刊誤精選』·『轉辭活譯』·『字音攷』·『算學傳授』等書幾十卷, 絀於力, 姑藏之.”

보는 『詩經日課』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저술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⁸⁾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筭學傳授』·『詩學證解』·『刊誤精選』·『字音考』·『轉辭活譯』⁹⁾ 등, 당시 후일의 간행을 위해 잠시 보관해둔다는 저술 가운데 『詩經註解』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기타 유가 경전에 비해 석정이 『시경』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기록해 두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미정문고』 해제에서는, 『미정문고』 별집 제1권에 수록된 『詩經日課』 「齊一之八」 편을 “산일된 『시경일과』의 일부 내용을 수습”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¹⁰⁾ 이번에 추가된 『詩經日課』 三卷의 동일한 필사 상황도 이 추정을 뒷받침한다.

2. 『시경일과』의 체제

『시경일과』의 기술 형식은 注釋體를 따르고 있다. 주석체의 세부 구성은 일반적으로 주석자의 경향을 반영하는데 석정의 『시경일과』도 그러하다.

『시경일과』의 각 卷頭, 즉 새로운 「風」이 시작하는 冒頭에 朱熹의 『詩集傳』과 鄭玄의 「詩譜序」¹¹⁾에서 각 國風의 해당 지역의 역사 연혁 記述 부분이 초록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詩譜序」 내용과 관련 孔『疏』가 雙行小字로 초록되어 있다. 한편, 각 詩篇의 경우에는, 章別로 나누어 『시경』 經文을 필사하고 열을 바꾸고 一格을

8) 최영성, 「解題」, 『石亭李定稷遺稿』 I, 金堤文化院, 2001, 學藝社, 9면, “「석정 행장」에 의하면, 『연석산방미정고』 30여 책 이외에도 『詩經日課』 3권, 『詩經註解』, 『詩學證解』 …… 등이 있다.”

9) 『石亭集』에 수록된 宋基冕의 「行狀」, 金甯漢의 敍文 등에는 轉辭活譯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轉辭活譯』의 誤記라는 박철상 선생님의 고증에 의거해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10) 최영성, 「石亭 李定稷 遺稿 解題」, 金堤文化院, 『石亭李定稷遺稿』 I, 2001, 學藝社, 14면. 아울러 같은 곳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시경일과 권지〇'라 하여, 卷次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 「齊一之八」이라 하여 전체가 아닌 斷篇임을 시사하는 제목이 있는 것은 그를 뒷받침한다.”

11) 鄭玄의 「詩譜序」 원문은 『毛詩正義』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鄭玄은 『毛詩』에 箋을 단 작업 외에 「毛詩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점차 散逸되었다. 北宋시기 歐陽修가 우연히 殘本 「毛詩譜」를 얻은 후 輯補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의 「詩譜補亡後序」에 관련 경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후 학자들이 여기에 추가로 보완하였다. 주로 『毛詩正義』 중의 「詩譜序」와 「詩譜」의 문장을 적출하거나 『經典釋文』 및 類書의 인용 자료에 의거해 교정하였다. 오늘날 『詩譜』(또는 『毛詩譜』)로 출간된 책은 輯軼本이다.

제4장: 〔經文〕-〔詩集傳注〕-〔舊傳云〕【箋云】

제5장: 〔經文〕-〔詩集傳注〕-〔舊傳云〕-【箋云】-〔陸義〕-〔疏云〕-〔(石亭)案說〕-〔詩序辨說〕¹⁵⁾

柏舟五章五章六句〔(石亭)案說〕(필자주:新舊同異 표기)

절록한 내용 범위의 경우, 『小序』, 毛『傳』, 鄭『箋』은 全文을 채록하였지만, 陸德明의 『音釋』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록했으며 孔『疏』도 때에 따라 일부 절록해두었다. 이러한 『시경일과』의 주석 체제는 주희 『시집전』을 앞쪽에 배치하고 『毛詩注疏』를 중심으로 하는 漢代 주석을 그 뒤에 배치함으로써 주희 『시집전』 주석의 내원과 『시경』 해석의 변천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구조를 지닌다. 또한 孔『疏』 초록에서의 取舍 양상 등은 『시경』 주석에 대한 그의 관심 경향을 유추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

단, 『시경일과』의 구성 체제는 통일되고 일관적인 데 비해, 『시집전』 傳文의 초록 부분이 공백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거나 초록상의 誤記, 缺落 양상¹⁶⁾이 보인다는 점에서 미완성의 필사로 추정된다. 한편, 그가 참고한 『詩集傳』 傳文은, 「鄘風·君子偕老」편 ‘嗟兮嗟兮’구, 「衛風·竹竿」편 ‘巧笑之瑳’구 등의 ‘瑳’자가 ‘璫’자로 표기된 판본이다. 「鄘風·君子偕老」편에서 석정은 이를 ‘傳寫상의 오류’로 추정하였는데,¹⁷⁾ 「衛風·竹竿」편에서 字書を 상고하고, ‘舊本’에 의거할 때, ‘今本’의 ‘璫’자 표기가 傳寫상의 오류일 듯하다고 근거를 들어 추정했다.¹⁸⁾ 여기에서의 ‘舊本’은 『毛詩注疏』를 가리키고 ‘今本’의 경우, 『詩集傳』이나 『詩集傳』 傳文을 수록한 후대 주석서로

14) 『小序』는 詩旨에 관한 것이므로 제1장만 보인다.

15) 표 안의 【 】, 『 』 부호는 주석 구분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 』 부호는 『시경일과』에서 석정이 인용 문헌 명칭을 명기한 경우를 표기한 것이고, 『 』 부호는 석정이 인용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원문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16) 가령 「邶風·柏舟」편 제1장 孔『疏』: “柏木所以宜爲舟, 猶仁人所以宜爲君, 非謂餘木不宜也.”에서 君자는 官자의 誤記이다. 제4장 經文에는 “憂心悄悄 慍于群小”구의 ‘小’가 결락되어 있으며 같은 장 『詩集傳』 원문 “衆, 妾也. 言見怒於衆妾也.”구의 ‘見’자가 결락되어 있다.

17) 李定稷, 『詩經日課』 권3, 「鄘風·君子偕老」, 19면, “按‘璫’字原作‘瑳’. 或傳寫誤也.”(『詩經日課』의 면수는 이미지 사진의 면수를 기준으로 기재함).

18) 李定稷, 『詩經日課』 권3, 「衛風·竹竿」, 112면, “按‘璫’字, 攷字書, 當作‘瑳’. 舊本亦然, 而今作‘璫’, 或傳寫誤也.”

보인다. 다만, 奎璧本, 新刊經書本 『詩集傳』, 『詩經諺解』, 『欽定詩經傳說彙纂』 등에는 ‘嗟’자로 표기되어 있고, ‘英宗大王御製’ 서문(英祖40년, 1764)이 있는 『詩傳大全』에는 ‘嗟’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 同本 『詩傳大全』에서 「王風·君子于役」편 ‘羊牛下括’구를 ‘牛羊下括’로 誤記한 점을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는 점 등에 의거할 때, 英祖40年 序文이 있는 朝鮮刊本 『詩傳大全』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시경일과』의 『시』설 분석구조

석정의 『시경』 분석은 古注에 대한 新注의 補充·取舍 양상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여기에서 古注·新注는, 협의로는 漢唐 주석과 宋代 주석이라는 경학사적 시대 구분으로서의 개념을 가리키지만, 광의로는 주석 발생간의 상대적 시간 개념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밝혀 둔다. 석정의 古注·新注의 비교를 통한 『시경』 분석은, 협의와 광의의 개념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확인되는 체재상의 비교는 篇題와 分章이 대표적이다. 篇題의 경우 『詩傳大全』 등 20권본 『詩集傳』 계열과 동일하게 大字로 제시하고 하단에 小字로 『毛詩詁訓傳』 계열의 篇題를 제시하였다. 한편 分章의 경우, 『詩集傳』의 分章 정보를 먼저 제시한 후 小字로 “舊同” 등을 적어두어 分章의 同異를 살폈다. 「鄘風·載馳」편의 경우, 『시집전』의 分章[“載馳四章. 二章章六句, 二章章八句”]과 分章이 다른 『毛詩詁訓傳』의 分章[“載馳五章. 一章六句, 二章四句, 一章六句, 一章八句”]을 雙行小注의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양자간 分章의 同異에 유의하였다.

篇題와 分章 체재에서도 알 수 있듯, 『시경일과』의 『시』설 분석은 주희의 『시집전』과 모시계열의 漢唐 주석간의 同異 양상 비교를 기본 구조로 한다. 간혹 「詩序辨說」¹⁹⁾ 원문을 그대로 초록해 둔 부분은 주로 주희의 『시집전』이 모시계열의 해석을

19) 「詩序辨說」은 「詩序」를 변증한 책으로, 「詩序」 원문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변증이 필요한 부분에 주희의 견해를 덧붙인 저술이다. 주희의 『시경』 해석은 『小序』의 해석을 존승했던 시기(『詩集解』)에서 『시경』 원문에 나아가 해석 체계를 세운 시기(『詩集傳』)로 전환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주희의 20卷本 『詩集傳』은 본래 「詩傳綱領」 등과 함께 「詩序辨說」(「詩序」 포함)이 부록으로 수록되었으나 元明代 이래 유통되던 10卷本, 8卷本에는 제외되었다. 후에 중국본 『詩傳大全』에는 卷一 앞에 부록으로 수록하였고, 『欽定詩經傳說彙纂』에서는 매 卷末에 分卷하여 「辨說」이라는 표지를 두어 수록하였다. 단, 우리나라에서 번각·복각된 『詩傳大全』의 경우, 중국본 『詩傳大

취사하는 과정에서의 논리를 잘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한다.

기본 구조의 특성상, 분석 내용 또한 주희 『시집전』 해석과 毛『傳』, 鄭『箋』 해석과의 차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비록, 내용면에서는 주희설의 뛰어남을 서술한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분석구조는 주희 『시집전』을 그 자체로 이해하고 절대 시하는 접근이 아닌, 『시집전』의 학술 원류와 해석의 변천 맥락을 짚어내는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석정 案說에서의 비교 분석 대상은 크게 詩旨, 賦比興, 訓詁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詩旨는 시편의 주제에 해당하며 ‘詩旨’, ‘大意’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바로 『小序』의 詩旨를 가져와 논의를 시작하는 형식을 띤다. 詩旨는 석정의 每 案說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부분이다. 詩旨의 비교는 『小序』와 『詩集傳』간의 비교가 중심을 이루지만, 세부적으로 『小序』, 鄭『箋』, 孔『疏』간의 보완, 변환 양상을 언급하기도 한다. 『詩集傳』은 ‘集傳’ 또는 ‘輯傳’²⁰⁾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한편 賦比興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급된다. 가령, 「邶風·凱風」편의 석정 案說에서는 “이 시의 大意는, 『시집전』이 모두 舊說을 따랐지만, 오직 제1장을 비교 한 것이 다르다.”²¹⁾한 것과 같이 이 시를 ‘興’으로 표기한 毛『傳』과의 차이를 언급한 사례 등이 그에 해당한다. 訓詁는 字句에 대한 해석 부분으로, 어휘, 명물, 제도 해석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案說에서는 이를 ‘散詁’로 명명하거나 따로 언급하지 않기도 한다. 案說에서의 詩旨, 賦比興, 訓詁 분석은 고정된 형식을 지니지 않고 논의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詩經日課』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모시계열의 漢唐 주석간의 同異, 補完 양상 및 주희 『시집전』에서 기존 설을 取捨하는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석정 해석의 내용적 접근은,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全』에는 있던 『詩序辨說』을 수록하지 않았다. 조선본 『詩傳大全』에 대해서는, 심경호,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455면 참조.

20) 본고에 인용하는 석정 원문 가운데 ‘輯傳’은 ‘集傳’으로 통일해 표기함.

21) 李定稷, 『詩經日課』 권2, 「邶風·凱風」, 52면, “此詩大意, 『集傳』皆用舊說, 而惟以首章為比者異矣.”

4. 석정의 『시경』 주석 시기와 성격

석정이 1902년 정월초하루에 지은 「元日(壬寅)」이라는 시에 의거할 때 석정의 『시경』 주석 작업은 만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에는 예순이 넘는 나이에 『시경』을 연찬하는 석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自余攻毛詩,	내가 『毛詩』를 연구하면서부터
箋疏經討尋.	經에 대한 箋疏를 찾아 탐구했지.
尊斥紛各異,	(經說에 대한) 尊斥이 분분하게 서로 달라
疑眩良難禁.	의혹되고 미망함을 실로 금하기 어려웠네.
偉哉紫陽筆,	위대하구나, 紫陽의 필치여,
折衷冠古今.	(衆說을) 折衷함이 고금의 으뜸이네.
何由策衰力,	어떻게 쇠잔한 기력을 채찍질하여
辨此自然音?	이 自然音을 변별해내리? ²²⁾

이 시는 「元日(壬寅)」편 두 수 중 두 번째 시이다. 두 수 모두 새해를 시작하며 학문 연마에 대한 반성과 다짐을 담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석정이 만년에 『시경』을 연찬하였다는 정보 외에 몇 가지 정보를 더 유추할 수 있다.

첫째는 석정이 『시경』을 특정 주석에만 의거해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주석을 찾아 탐구하였다는 점이다. ‘箋疏’는 鄭玄의 『箋』과 孔穎達의 『疏』를 위시한 漢唐代 『시경』 주석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경일과』에서 『시집전』을 인용한 다음에 毛『傳』, 鄭『箋』, 孔『疏』의 문장이 절록된 형식 또한 석정이 다양한 주석을 아우르고자 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與海鶴論詩文記」에서, 석정이 언급한 ‘博悟’²³⁾, 즉 넓게 익혀 얇의 깨우침을 얻는 접근이, 그의 『시경』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둘째는 석정이 기존 주석들 사이의 의견의 분분함과 상이함에 대해 매우 어렵게

22)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Ⅳ, 「燕石山房詩稿四·元日(壬寅)其二」, 金堤文化院, 2001, 學藝社, 69~70면. 번역은 『石亭李定稷遺稿』 및 이승용(2017:22)의 번역을 참고하되 尾聯의 번역은 두 구 서술어의 主體를 주희가 아닌, 석정 자신으로 수정해 번역하였음을 밝혀 둔다.

23)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Ⅳ, 「燒餘錄·與海鶴論詩文記」, 金堤文化院, 2001, 學藝社, 348면, “專精而讀習者, 安於一偏, 惟博而就悟者, 能達其性.”

느꼈다는 점이다. 이는 석정의 기존 설의 다양한 섭렵 과정이 『시경』에 대한 통찰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난해함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과정이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셋째는 紛紛한 『詩』說을 성공적으로 절충해낸 사례로 주희의 『시경』설을 꼽았다는 점이다. 이는 석정이 주희의 『시경』설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가 높이 평가한 주희의 『시』설 부분은 바로 주희의 ‘創見’이 아닌 기존 『시』설들에 대한 ‘折衷’의 면모에 있음을 알려준다. 석정의 주희 『시』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시경일과』의 체재 및 분석구조상의 특징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는 또한 석정의 案說에 자신의 創見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될 수 있다.

넷째는 석정이 노년의 쇠잔한 여력을 모아 이 ‘自然音’을 변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이다. 이에 의거할 경우, 석정의 『시경』 연구는 당시 시점이 완결 단계가 아니라 과정 중의 시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는 석정이 강조하는 학문에서의 ‘折衷’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성격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려대 육당문고에 소장된 『연석산방미정고 별집』 2책에 수록된 ‘新舊折衷內篇’, ‘新舊折衷外篇’을 통해 볼 때도²⁴⁾ 석정의 학문, 사상에 ‘折中’·‘折衷’이 지니는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학문과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기계적인 단순한 합체가 아닌, 과거 학문의 다양한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성찰을 가리키며, 이 ‘절충’을 통해서 비로소 가치 있는 ‘창견’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절충’이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접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Ⅲ. 석정 『시경』론의 특징적 면모

본 장에서는 해석학적 각도에 초점을 맞추어 석정 『시경』론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는 석정이 『시』 해석의 내원과 계승

24) 이 새로운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김영진, 「연석산방(시집·문고·별집) 미정초와 간본 석정집 수록작 비교」, 『석정 이정직 서거 110주기 학술대회 발표집: 석정 이정직 학문과 예술의 학술사적 위상』, 국립전주박물관·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11.19, 28면 참조.

맥락을 중시하는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經典의 ‘언어 의미’와 변별되는 해석자의 ‘해석 의미’를 중시한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로는 두 번째 논의와의 연관선상에서, 경전 언어와 유리된 ‘迂廻’적인 해석보다 경전 언어에 가까운 ‘直’釋을 긍정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 해석의 내원과 계승 맥락을 통한 ‘折衷’적 해석 구현

『시경일과』에는 『시』 해석의 내원을 추적하고 주석 간의 해석이 어떠한 계승 맥락을 지니는지를 논의한 언급이 종종 등장한다. 기존 주석을 正誤, 是非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주석 간의 계승과 취사 양상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석정이 계승과 취사 양상을 고찰하는 대상은 앞 절의 ‘체재’에서 다룬 바 있듯, 『小序』, 毛『傳』, 鄭『箋』, 孔『疏』와 『詩集傳』을 중심으로 한다. 석정에게 있어, 이들은 전통 『시경』 해석의 계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석이자, 『시경』을 읽는, 일종의 전범적인 방법들이 담겨있는 주석이며, 『시경』 해석의 흐름이 유의미하게 추적 가능한 설득력 있는 주석이다.

석정은 『시경』 해석에서의 ‘추적 가능’ 여부를 중시했다. 이때의 추적은 현재의 해석이 의거한 과거의 해석을 가리킨다. 매천 黃玟이 석정에게 보낸 편지에서, “매번 足下를 뵈면, 時世를 논할 때에는 필히 大家를 말씀하시고 文藝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古法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편의 문장을 지을 때마다 문득문득 놀라 (이것이) 예전에 있던가, 없던가?” 하시며 전전궁궁하시기를 법의 엄중함과 같이 하셨습니다.”²⁵⁾라고 한 부분은, 석정이 古法을 중시한 점을 관찰자인 황현의 시점에서 보여주는데, 이 가운데 “예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於古有否)”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문 태도는 석정의 『詩經』 해석에 대한 접근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석정이 주석을 평할 때, 그 내용의 ‘古’를 추적하여 依據가 있는 주석과 杜撰한 주석을 변별해내는 데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해석자의 특정 주장이 기존의 어떤 주장에 依據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석정의 접근은, ‘古’의 내원을 추적하는 방향이자 『시경』 학의 변천 배경을 읽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5) 黃玟, 『梅泉集』 권6, 「書·答李石亭書」, 한국문집총간 348, 496면, “每見足下論世則必曰大家, 談藝則必曰古法. 每一篇下筆, 輒瞿然顧曰於古有否? 兢兢惴惴, 不啻三尺之嚴.”

먼저, 「王風·君子陽陽」편 案說의 詩旨와 관련된 분석을 통해, 내원을 중시하는 석정의 『시경』 해석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석정은 먼저 ‘君子’가 가리키는 대상에 서부터 시작한다. 『小序』에서는 “君子가 亂世를 만남에 불려 들어 俸祿받는 벼슬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孔『疏』에서는 “樂官은 봉록이 있으면서 言責이 없으므로 시대의 곤궁함을 구차히 면할 따름이”라고 하였는데, 석정은 이 주석에서 ‘祿仕’가 ‘樂官’을 가리킴을 짚어냄과 동시에 시편의 내용상(군자가) 어지러운 세상을 만났다는 뜻은 드러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석정은, 주희도 이 점을 의심하여 婦人이 지은 시로 추정했으며, 반드시 그러한지[必然]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에 (『詩序』說에 동의했던) ‘或說’을 함께 남겨 두었다[并存]고 보았다.²⁶⁾

이 案說의 말미에, 석정은 다시 圓點[‘○’]을 두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여기에서 특정 『시』설이 내원한 ‘근거’, ‘의거’를 중시하고 ‘舊傳’, 즉 ‘古’의 계승 양상의 추적을 중시하는 석정의 학문 태도를 잘 살필 수 있다.

○『詩集傳』의 끝에 “或者는 『詩序』의 설도 通한다.”라 하였으니 다시 살펴 보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를 살펴보면, 주자는 『시경』에 대해 단지 舊傳에 의거하고 다시 衆說을 종합한 가운데 의미가 아직 홀륭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았을 따름이지, 고의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 옛 설들을 폐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詩序』의 설을 쓰지 않은 것으로 분분하게 의심하니 참으로 잘못되었다.²⁷⁾

맥락에 의거할 때, ‘舊傳’은 毛『傳』, 鄭『箋』, 孔『疏』를 포함한 「詩序」의 해석을 가리키고, 衆說은 宋代 주석 등의 기타 주석을 포함한 해석을 가리킨다. 석정의 이 논의 안에서는 『시경』 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평가되는 주희설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는다. 대신, 주희의 『시』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創見을 내는 데에 핵심이 있지 않으며 ‘舊傳’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음이

26) 李定稷, 『詩經日課』 권4, 「王風·君子陽陽」, 17면, “此詩『小序』, ‘君子遭亂, 相招爲祿士’, 而『疏』云, ‘樂官有祿而無言責, 苟免時耳.’ 蓋謂祿仕爲樂官也. 詳詩, 無遭亂之意, 故『輯傳』亦爲婦人所作, 而又未知其必然, 故并存或說也.”

27) 李定稷, 『詩經日課』 권4, 「王風·君子陽陽」, 18면, “○『集傳』之末, 附以或曰『序』說亦通. 宜更詳之.’ 觀此則朱子於『詩』, 特因其舊傳而復輯衆說, 以正其義意之未長而已, 非故立己說而遂廢舊書也. 或者以不用『序』說, 紛紛致疑, 何其謬歟!”

강조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邶風·北門」편의 분석에서와 같이, “『시집전』의 詩旨는 「소서」에서 ‘刺’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따랐으며 訓詁에서는 毛『傳』에서 ‘敦’자의 훈고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따랐다.”²⁸⁾고 서술하는 방식이 『시경일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元日」시에서 석정이 높이 평가한 바 있던, 주희 『시』설의 舊說에 대한 ‘折衷’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案說에 의거할 경우, 「元日」시의 ‘折衷’은 상반되는 의견이나 논쟁을 중재·조절하는 折衷이기보다, 『小序』, 毛『傳』, 鄭『箋』의 미진한 해석을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조정해내는 折衷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석정의 의도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시경』 주석의 관계성을 증시하는 석정의 治『詩』 태도는, 訓詁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王風·葛藟」편 제1장 ‘在河之漘’구의 ‘漘’자와 제3장 ‘在河之漘’의 ‘漘’자에 대한, 석정의 訓釋이다.

(『詩集傳』의) 여러 訓詁는 舊說을 따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漘’의 경우, 毛『傳』의 ‘물가’라는 訓釋은 「爾雅·釋水」편의 문장을 취한 것이고 『시집전』의 ‘언덕 위’라는 훈석은 「爾雅·釋丘」편의 문장을 취한 것이다. (이는 『시집전』이 毛『傳』의 「爾雅·釋水」편의 훈석과 「爾雅·釋丘」편의 훈석을) 대비시켜 상호간에 밝힌 것이다.²⁹⁾

석정은 毛『傳』과 『詩集傳』에서 ‘漘’자를 訓釋할 때 의거한 문헌이 모두 『爾雅』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爾雅·釋水」편을, 다른 하나는 「爾雅·釋丘」편을 인용하였다는 차이점을 짚어내었다. 그리고 『시집전』에서 『모전』이 인용한 「釋水」편의 훈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釋丘」편의 훈석을 취한 것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였는데, 두 훈석을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함이, 석정이 추정한 주희의 의도이다. 이 訓釋을 통해, 우리는 석정의 훈석 목적이 기존 訓釋의 是非를 변별하는 데보다 내원을 추적하는 데 있으며, 훈석의 변별점에는 주석자의 특정 의도

28) 李定稷, 『詩經日課』 권2, 「邶風·北門」, 111면, “此詩『集傳』於『小序』除一‘刺’字, 於毛『傳』除一‘敦’字之詁, 其他無不從之.”

29) 李定稷, 『詩經日課』 권4, 「王風·葛藟」, 40면, “散詁多從舊說, 而‘漘’, 『傳』云, ‘水厓’者, 取「爾雅·釋水」文也. 『集傳』云, ‘岸上’者, 取「釋丘」文也. 蓋互舉而相明之也.”

가 존재한다는 추정을 보다 선명하게 할 수 있다.

古注와 新注가 ‘互舉而相明之’의 관계를 이룬다는 석정의 관점은, 이전 주석과의 긴밀한 연관선상에서 『시집전』을 이해해야 한다는, 『시경』 주석의 접근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석정은 「王風·中谷有蓷」편의 ‘不淑’과 ‘何嗟及矣’구의 훈석도, 『詩集傳』과 舊說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뜻이) 相互간에 발명된다³⁰⁾고 언급하여, 주석에 대한 상호간의 비교를 통해 의미가 밝혀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물론, 『시경』 주석이 내원한 근거를 모두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가령, 「齊風·南山」편 ‘葛屨五兩, 冠綏雙止’구 ‘綏’자의 경우, 毛『傳』, 鄭『箋』에서 名物 訓釋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시집전』에서는 “冠上飾”으로 訓釋하였다. 석정은 이 『시집전』 訓釋의 내원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儀禮·士冠禮」(鄭玄)注에 ‘(綏는) 갓끈의 장식[纓飾]이다.’³¹⁾라 하였다. 『시집전』에서 ‘冠上飾’이라고 한 것은 (『의례』의 鄭玄注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듯한데) 전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폭넓은 고찰을 기다린다.”³²⁾ 주석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를 통해 주석의 근거와 출처를 검토한 면모를 살필 수 있다. 동시에 석정은 출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을 명시해둠으로써 후학들이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시집전』의 ‘綏’자에 대한 訓釋인 ‘冠上飾’의 출처에 대해서는, 석정만이 고민한 것은 아니다. 姜炳璋(1736~1813)은 ‘冠上飾’의 ‘上’자가 ‘下’자에 대한 판각의 오류라고 제기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자의 訓釋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³³⁾ 또한 “『의례』의 注釋을 襲用하였지만 분명하지 않다.”³⁴⁾고 평가한 陳啓源(1834~1903)의 훈석과 내용은 유사하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 결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30) 李定稷, 『詩經日課』 권4, 「王風·中谷有蓷」, 30면, “惟‘不淑’與‘何嗟及矣’, 與舊說微異而互相發明.”

31) 鄭玄 注, 賈公彥 疏, 彭林 整理, 『儀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61면.

32) 李定稷, 『燕石山房文藁』Ⅱ, 「別集一·齊一之八·南山」, 金堤文化院, 2001, 461면, “綏, 「儀禮·士冠禮」注云: 纓飾也. 『集傳』云, 冠上飾. 未詳所出, 俟博考.”

33) 姜炳璋, 『詩序補義』 권8, 「齊風·南山」, “若綏則, 冠下皆有之. 『集傳』冠上飾云, ‘上’者, 刻本之訛.”

34) 陳啓源, 『毛詩稽古編』 권6, 「齊風·南山」. “冠綏雙止: 『說文』云: 綏, 繫冠纓也. 『內則』注云: 綏, 纓之飾也. 『疏』云: 結纓領下以固冠. 結之餘者, 散而下垂, 謂之綏. 『集傳』訓為‘冠上飾’, 襲『禮』注而未明.” 그 외, 『詩集傳』의 ‘冠上飾’에 대해서는 姜炳璋과 같이 ‘上’자가 ‘下’자의 誤字라고 지적한 경우도 있어 참고할 수 있다.

2. 經典의 ‘언어 의미’에 대한 해석자의 ‘해석 의미’ 중시

전통 『시경』 해석을 수용, 계승하는 과정에서 전대 주석가들의 주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주석가가 옳고 그름을 가려내어 비판, 수용, 보완의 작업을 거칠 때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아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석 내용의 是非, 正誤에 초점을 두기보다, 주석가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주석 의도나 목적을 갖고 주석 내용을 작성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 석정의 『시경』 분석은 經文과 석정 사이에 발생하는 대화보다 『시경』 주석가와 석정간에 발생하는 대화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석정의 『시경』 인식에는 ‘해석자(또는 주석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석정은 『시경』 경문 언어의 의미와 해석자의 해석 의미를 구분했다. 이러한 의미의 층위 구분은, 석정이 「鄘風·桑中」편의 刺淫詩(『小序』)와 淫奔詩(『詩集傳』說) 논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데도 반영되어 있다. 석정은 孔子의 刪詩를 거친 현재의 『시경』은 절대 ‘淫詩’가 없다는 馬端臨의 관점이 편파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하는 데,³⁵⁾ 그 중 두 번째 반론을 살펴본다.

「桑中」편 『小序』에서 말하는 刺奔으로서의 해석이나 朱子が 말하는 懲創으로서의 해석은, 그 논의가 詩辭의 바깥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桑中」편(의 경전 언어)이 淫詞를 말하고 있음도 동일하다. 그런데 그가[인용자 주: 馬端臨을 가리킴] 『小序』의 설과 같은 경우는 채록할 수 있지만 朱子의 설과 같은 경우에는 刪削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독 어째서인가!³⁶⁾

이는 비록 주희의 淫詩說을 배척하는 馬端臨의 관점을 비판하는 논의이지만 논의

35) 첫 번째는 聖人이 淫奔者의 소리를 남겨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懲創하게 하고자 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閭巷男女의 진솔한 감정에 서 나온 가요를 采詩者가 채집해 편찬했으나 시편이 본래 그들의 自作이라는 점이다. 李定稷, 『詩經日課』 卷三, 「鄘風·桑中」, 29면, 「「桑中」之詩, 雖出於奔者之口, 然聖人所以不刪者, 將使見之者羞惡而懲創之也歟! 且『小序』所云刺奔, 朱子所云懲創, 其在於詩辭之外同也, 『小序』所云刺奔, 朱子所云懲創, 其在於詩辭之外同也. ……『集傳』謂之淫奔者所自作, 亦有說焉. 夫閭巷男女之作其始也, 出於無知者之任情歌謠, 而採風謠者綴之為詞, 原其始即出於淫奔者之口, 故曰自作也. 朱子於「詩傳序」固已發之矣.”

36) 李定稷, 『詩經日課』 卷3, 「鄘風·桑中」, 29면, “『小序』所云刺奔, 朱子所云懲創, 其在於詩辭之外同也. 「桑中」之詩, 其謂淫詞亦同也. 彼謂如『小序』之說則可錄, 如朱子之說則可刪, 獨何哉!”

안에 석정이 경전 언어의 의미와 해석 의미를 구분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석정은, 『小序』에서 말하는 刺奔詩로서의 해석이나, 『詩集傳』에서 말하는 淫奔者의 노래로 懲創의 작용을 한다는 해석은 모두 ‘詩辭의 바깥’, 즉 경전 언어의 바깥에서 위치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小序』와 朱熹의 해석 의미는 모두 ‘淫’의 성격을 지닌 경전 언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 설명은 석정이 경전의 ‘언어 의미’와 ‘해석 의미’간의 층위를 구분하였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석정은 『시경』 작품에 내재된 다양한 기제들이 해석자를 만나 비로소 ‘活潑’하게 작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關雎」편을 중심으로 한 ‘賦比興’ 논의에도 잘 드러난다.

석정의 賦比興 논의는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주목한 바 있다. 심경호는 석정의 상기 논문이 “고전해석학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³⁷⁾라고 강조하였다. 논의에서 석정의 賦比興 ‘互因’을 주목한 바 있는데, ‘互因’이란 석정이 賦比興을 託意로 규정하고³⁸⁾ ‘互因’의 구체적인 양상을 “興이면서 賦·比의 의미를 겸하거나, 賦이면서 比·興의 의미를 겸하는 경우, 比이면서 賦·興의 의미를 겸하는 경우.”³⁹⁾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표현이다. 이 賦比興 ‘互因’說에 대해, 심경호의 연구는 주자의 설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보았으며 시편의 해석적 다양성이 “시편 시에 내재하는 양식적 유연성과 의미의 중층성에서 기인한”⁴⁰⁾ 것으로 보고 시편에 내재하는 특징에 초점을 두어 ‘互因’說을 파악했다. 본고는 ‘해석자’의 각도에 초점을 맞추어 시편과 해석자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해석 층위에서 ‘互因’을 파악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석정의 賦比興 互因說은 ‘告往知來’라는 孔子의 讀『詩』法과 맞물려 있는데, 이러한 까닭에 『시경』 해석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석정은 「關關雎鳩在河之洲說」의 시작부분에서 공자가 자공에게 말한 “告諸往而知來者” 구절을 언급한다. 공자가 ““학습한 것을 설명해주니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것까

37) 심경호(2008), 44면.

38)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Ⅱ, 「燕石山房文藁八·說·關關雎鳩在河之洲說」, 265면, “其命名有風雅頌, 其託意有賦比興. 命名者各有攸定, 託意者可以互因.”

39)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Ⅱ, 「燕石山房文藁八·說·關關雎鳩在河之洲說」, 265면, “互因則興也而兼賦比之義, 賦也而兼比興之義, 比也而兼賦興之義.”

40) 심경호(2008), 50~51면.

지 깨닫는다.’는 것으로 ‘비로소 함께 『시』를 얘기할 수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는 비록 聖人の 한 때 말씀에서 나왔지만 실로 『시』 삼백 편을 읽는 데 불변의 법칙이 된다.”⁴¹⁾고 파악했다. 자공의 ‘貧而無諂, 富而無驕’에 대해 공자가 가르친 것은 그보다 높은 단계인 ‘貧而樂, 富而好禮’의 단계이며, 이를 통해 자공이 「衛風·淇澳」편의 ‘如切如磋, 如琢如磨’를 읊어, 정밀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피력한 부분은, 공자가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이를 『시경』 해석에 적용하면, ‘告諸往’의 ‘往’은 『시경』 ‘경전 언어의 의미’이고 ‘知來者’의 ‘來者’는 그에 대한 해석자의 깨달음이 반영된 ‘해석 언어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석정은 賦比興이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기인한다[互因]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은 해석자의 해석 의미에 나아가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석정이 소개한 「關雎」편 제1장의 賦比興의 두 가지 해석구조를 소개한다.

① 關雎는 물새인데 河水의 모래톱에 있으니 賦로 진술한 것이 아니겠는가! 河水의 모래톱의 幽深함으로 窈窕의 幽閒함을 형용하였으니 比論가 아니겠는가! 淑女를 군자의 배필로 삼음을 말하고자 먼저 關雎의 和聲이 있음을 말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興起이다. 그 대략을 들으면 興이지만 賦와 比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⁴²⁾

② 「關雎」편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는 君子에 대한 淑女의 관계는 人君에 대한 賢臣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것이다. 君子에게 淑女가 있으면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人君에게 賢臣이 있으면 국가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로 보면 비록 「關雎」편 전체를 比로 파악할 수 있지만, 또한 賦와 興이 그 안에 있다 할 수 있다.⁴³⁾

41)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Ⅱ, 「燕石山房文藁八·說·關關雎鳩在河之洲說」, 265면, “孔子以‘告諸往而知來者’, 謂始可與言『詩』’, 雖出於聖人一時之言而實爲讀『詩』三百篇不易之法矣.”

42)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Ⅱ, 「燕石山房文藁八·說·關關雎鳩在河之洲說」, 265면, “關雎, 水鳥也而在河之洲, 非賦諷乎! 以河洲之幽深形窈窕之幽閒, 非比論乎! 將言淑女之配君子, 而先之以關雎之有和聲. 此所謂興起也. 舉其大致則是興也而賦與比在其中.”

43)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Ⅱ, 「燕石山房文藁八·說·關關雎鳩在河之洲說」, 266면, “抑有說焉. 淑女之於君子, 猶賢臣之於邦君也. 君子有淑女, 可以治家, 邦君有賢臣, 可以治國家天下. 由斯義也, 則雖以「關雎」一篇爲比, 亦可以賦興又在其中矣.”

①에서는 「關雎」편 제1장이 興을 중심으로 하면서 賦와 比가 그 안에 있는 託意구조로 해석되고 ②에서는 「關雎」편 전체가 比를 중심으로 하면서 賦와 興이 그 안에 있는 託意구조로 이해된다. ①과 ②는 「關雎」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의미’가, 서로 다른 賦比興의 託意구조로 분석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석정의 賦比興 분석은 시편의 언어 자체에 고정되지 않고 해석자의 해석에 의거함으로써 해석자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訓釋이 동일해도 경전 언어의 의미와 해석자의 해석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은 석정의 賦比興 이해와도 맞물려 있다. 가령 「邶風·二子乘舟」의 경우, 석정은 『시집전』이 『小序』·毛『傳』의 설을 따랐다고 하면서, 오직 ‘二子乘舟, 泛泛其景/逝’ 구에 대한 해석에서 毛『傳』은 ‘喻’로, 『詩集傳』은 ‘賦’로 보았다고 변별하였다.⁴⁴⁾ 즉, 『小序』·毛『傳』과 『시집전』 모두 衛宣公이 아들 伋을 죽이려 하자, 아들 伋과 壽가 서로 죽고자 하는 상황을 읊은 시로 파악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毛『傳』은 이들이 죽기 위해 다투어 (死地로) 나아가는 것이 ‘마치 배가 아무 거침없이 빨리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풀이하였는데,⁴⁵⁾ 석정은 이를 비유[喻]로 파악했다. 한편 『詩集傳』은 이 구절이 伋과 壽가 실제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을 읊었다고 해석하므로 賦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해석자의 해석에 따라, 賦比興의 託意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석정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3. ‘迂廻’적 해석보다 ‘直’釋의 긍정

본 소절은 앞 소절의 연장선으로, 해석자의 해석에 대한 석정의 평가가 어떠한 경향성을 지니는지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석정은 한 편의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근거가 타당하고 의리에 합당할

44) 李定稷, 『詩經日課』 권2, 「邶風·二子乘舟」, 128면, “『集傳』於此詩亦從『小序』及『傳』說, 而唯乘舟泛泛, 『傳』謂之‘喻’, 『集傳』則以為‘賦’也.”

45) 毛氏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注疏』 권2, 「邶風·二子乘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2014, 243면, “二子, 伋·壽也. 宣公爲伋取於齊女而美, 公奪之, 生壽及朔. 朔與其母慝伋於公, 公令伋之齊, 使賊先待於隘而殺之. 壽知之以告伋, 使去之. 伋曰: ‘君命也. 不可以逃.’ 壽竊其節而先往, 賊殺之. 伋至曰: ‘君命殺我, 壽有何罪?’ 賊又殺之. 國人傷其涉危遂往如乘舟而無所薄, 汎汎然迅疾而不礙也.”

경우 모두 ‘通’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가령, 「關雎」편의 주제와 관련하여, (后妃太姒가⁴⁶⁾ “淑女를 얻어 君子의 배필로 삼아움을 즐거워하고 어진 이를 천거할 것을 근심하며 자신의 色을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것이고, (뛰어난 인물이 천거되지 못하고) 窈窕한 곳에 있음을 가슴아파하고 賢才를 생각하여 善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⁴⁷⁾으로 보는 毛詩 계열의 해석도 ‘可通’이라 평가였고, 이외는 상반되게 后妃로서 失責한 康后 때로 배경을 파악하는 三家詩의 해석도, “쇠란하게 된 연유로 인해 興起할 근거를 생각한 것을 「關雎」편이 지어진 배경”으로 파악하는 歐陽修의 해석에 의거할 경우 ‘可通’이라고 평가였다.⁴⁸⁾ 석정은 상반된 해석도 통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의 해석이 근거가 타당하고 義理에 합당하다고 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석정은 경전의 언어 의미와 유리되어 ‘迂廻’하는 해석보다, 경전의 언어 의미를 곧바로 해석 의미로 연계할 수 있는 ‘직설적’인 해석을 높이 평가했다. 석정의 「邶風·日月」 분석을 일례로 소개한다.

毛『傳』에서는 비유[‘喻’]의 구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鄭『箋』에서 ‘日月은 國君과 夫人을 비유한다.’고 말한 까닭에 그의 해석이 ‘迂廻’하게 되었다. 『集傳』에서는 곧바로[直] ‘해와 달을 부르며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이해 하기에 어렵지 않아 「日月」편의 뜻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⁴⁹⁾

46) 석정은 『小序』에서는 ‘后妃’로 지칭된 주체가 鄭『箋』에서 ‘太姒’로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47) 毛氏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注疏』卷第一, 「關雎」,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2014, 26면, “是以「關雎」樂得淑女以配君子, 哀在進賢, 不淫其色. 哀窈窕, 思賢才而無傷善之心焉. 是「關雎」之義也.” 이 부분의 번역은 孔『疏』의 해석에 의거하여, 朴小東譯, 『譯註 毛詩正義』(1), 傳統文化研究會, 2016/2017, 179면을 참고해 부분 윤색했음을 밝힌다.

48)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Ⅱ, 「燕石山房文藁八·說·關關雎鳩在河之洲說」, 265면, “毛萇以「關雎」爲后妃之德而鄭玄謂是太姒. 此因毛公說也. 揚雄杜欽謂是康后, 此因齊魯韓三家說也. 夫太姒助文王有致治之美, 康后在康王政衰之時有晏朝之失. 一則稱之, 一則傷之, 相反甚矣. 歐陽脩以爲王者之興豈專由女德, 惟其後世因婦人以致衰亂, 則宜思其初有婦德之助以興爾. 因其所以衰思其所以興, 此「關雎」之所以作也. 以此言之二說皆可通矣.”

49) “「邶風·日月」“『傳』不云喻, 而『箋』云: ‘日月喻國君與夫人.’ 惟其云喻, 是以其解迂廻. 『集傳』直曰號日月而訴之, 不費解, 一篇之義, 明白可知矣.”

毛『傳』에서는 ‘日居月諸，照臨下土’구를 ‘日乎月乎，照臨之也’로만 풀이하였을 뿐, 경전 언어인 日·月이 다른 비유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석정은 日·月이 國君과 夫人을 비유하는 구조로서의 해석은 鄭『箋』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 毛『傳』과 鄭『箋』의 해석 의미를 변별하였다. 그리고 鄭『箋』의 해석이 ‘비유’라는 층위를 더함으로써 경전 언어를 직접 내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회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비해 주희의 해석은 경전의 언어 의미를 그대로 살려 해석함으로써 우회하는 어려움이 없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평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 석정이 ‘迂廻’적인 해석보다는 경전의 언어 의미에 가까운 ‘직설적’인 해석을 선호함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전자를 ‘迂廻’적 해석으로, 후자를 ‘直’釋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석정은 ‘迂廻’적 해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그 해석에 담긴 가치나 의의마저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關關雎鳩在河之洲說」에 인용된 해석 가운데, 석정의 평을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의 해석을 요약해 제시한다.

no.	해석자	주요 해석 내용	석정의 評
①	鄭樵	康王 때 「關雎」를 연주[作]하여 경계와 풍자의 뜻을 펼쳤다고 봄	- 歐陽修의 설과 비교하면 근거가 있지만 아직 미비함(此比歐陽所言爲有徵而猶未也).
②	朱子	시에서는 太姒만을 찬미했지만 실제로 文王의 德을 깊이 볼 수 있음	- 曾鞏의 說을 계승·발전한 해석. - 여기에 이르러 「關雎」說이 비로소 조금의 유감도 없게 되었으며 告往知來의 뜻이 갖추어짐. - 立言이 道에 부합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길 수 있음.
③	詩序	「關雎」樂得淑女以配君子，憂在進賢，不淫其色，哀窈窕，思賢才，而無傷善之心焉	- 孔子 “樂而不淫哀而不傷”에 의거한 해석 - 시편 언어의 문자를 벗어나 迂廻하여 뜻을 구함(離析文字，迂廻而求之). - 然其見窈窕而思賢臣 ⁵⁰⁾ ，則亦可謂得其告往知來之旨也

50) ‘哀窈窕，思賢才’에 대한 석정의 “見窈窕而思賢臣” 해석은, ‘賢才’를 ‘어질고 뛰어난 여인’으로 해석하는 孔『疏』와 다르다. ‘哀窈窕’를 ‘見窈窕’로 해석한 부분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석정은 정초의 해석이 양웅과 사마천에 의거한 것이기에 구양수 설에 비해 근거가 있다고 보았지만 아직 미비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曾鞏이 적용한 修身齊家治國의 논리를 발전시켜 「關雎」편의 대상을 표면의 太姒에서 이면의 文王으로 전환시켰음을 언급하고, 이 해석에 이르러서야 「關雎」편의 의미가 유감없이 드러나고 ‘告往知來’의 뜻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소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시편의 문자 의미와 유리된 우회된 의미로 해석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告往知來’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석정이 경전의 언어 의미와 유리되어 迂廻하는 해석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迂廻적인 해석 또한 ‘告往知來’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정은 해석자의 해석의 文勢가平易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긍정한다. 가령, 「鄘風·載馳」편 제4장 ‘芄芄其麥’구를, 毛『傳』은 “芄芄然하게 盛長한 보리”로 풀이하였는데, 鄭『箋』은 “보리를 아직 수확하지 않아 백성들이 장차 곤궁함을 겪게 됨을 말한 것.”⁵¹⁾으로 풀이하였다. 이에 대해, 석정은 “들판에서 보리밭을 지나면서 사물에 감흥하여 흥을 돋우는 것으로 풀이하면 뜻을 취함이 平易한데, 鄭『箋』은 衛나라 백성이 기근으로 괴로워함을 연민한 것으로 說을 삼았다. 정현의 『시』 분석은 그 의미를 곡진히 하고자 하는 데 힘쓰니, 그것이 지나치면 천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평하였는데⁵²⁾, 여기에서의 ‘平易’함은 ‘直’釋의 맥락에서, ‘의미를 곡진히 함이 지나침’은 ‘迂廻’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석정이 ‘刺詩’로서의 해석보다는 ‘淫詩’로서의 해석을 더욱 긍정하는 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王風·大車」편의 詩旨에 대해, 「詩序」에서는 “周나라 大夫를 풍자한 노래다. 예의가 무너지고 남녀가 음분해진 까닭에 옛날 일을 펼쳐 오늘날 大夫가 남녀간의 訟事を 판결하지 못함을 풍자하였다.”⁵³⁾고 보아 美刺說 가운데 刺詩로 분석하였다. 한편 『詩集傳』에서는 “周나라가 쇠했는데도 大夫 가운데는 오히려 刑法과 政令으로 자신의 私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51) 毛氏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注疏』 권3, 「鄘風·載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2014, 287면, “芄芄者, 言未收刈民將困也.”

52) 李定稷, 『詩經日課』 권3, 「鄘風·載馳」, 68면, “且於‘芄芄其麥’, 謂之在野涉麥, 感物興懷, 則其取義甚平易, 而『箋』乃以閔衛民之饑因為之說. 蓋鄭氏之言『詩』, 務欲曲盡其義, 其甚焉, 則失之鑿矣.”

53) 毛氏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注疏』 권4, 「王風·大車·小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2014, 366면, “大車 刺周大夫也. 禮義陵遲, 男女淫奔, 故陳古以刺今大夫不能聽男女之訟焉.”

淫奔한 이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노래하였다.”⁵⁴⁾고 하여 淫奔者가 노래한 淫詩로 파악했다. 『詩序辨說』에서 주희는, 이 시가 刺詩가 아닌, (淫奔者가) 대부분을 두려워해서 지은 시임을 밝혀 변별해 두었다.⁵⁵⁾ 그럼에도 석정의 분석은 『小序』와 『詩集傳』의 詩旨간에 차이 있음보다 차이 없음을 먼저 거론하였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大夫를 풍자한 刺詩로 본 『小序』와 달리, 『詩集傳』은 ‘곧바로’[直] 淫奔者가 두려워하여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⁵⁶⁾ 즉, 刺詩는 곧바로 시의 내용을 淫奔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의미의 충위를 한 겹 더하는 구조로 迂廻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을 살펴보면, 석정이 ‘迂廻’했다고 보는 해석은, 시의 언어나 관련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과 인물을 시편과 연결시켜 찬미 또는 풍자하는 해석으로 귀납시키거나 과도하게 천착해 의미를 부여하려는 해석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關雎』편에 대한 「소서」의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 석정이 ‘迂廻’적인 해석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우회’적인 해석 보다는 ‘直’釋을 보다 효과적인 해석 방향으로 보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거칠게나마 석정의 『시경』 관련 저술 양상과 『시경』 인식의 특징을 개관해 보았다. 『시경』 해석학의 각도에서 볼 때, 석정 『시경』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석정은 『시경』학의 맥락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경』 해석의 계승과 변천 과정에서의 맥락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석정은 주자 『시경』 해석의 가치를 ‘獨創’에서보다는 ‘折衷’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

54) 朱熹, 『詩集傳』 권4, 「王風·大車」, 『朱子全書』 第1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467~468면, “周衰 大夫猶有能以刑政治其私邑者, 故淫奔者畏而歌之如此.”

55) 朱熹, 『詩序辨說』, 『朱子全書』 第1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369면, “非刺大夫之詩, 乃畏大夫之詩.”

56) 李定樞, 『詩經日課』 권4, 「王風·大車」, 50면, “此詩大旨與『小序』畧同, 而但『小序』以為刺周大夫不能聽訟. 『集傳』直以為淫奔者畏而歌之.”

은 주자 『시경』학을 漢代 『시경』학과 대립시키며 그 독창적인 면을 부각하고 다른 면을 배격하는 학문 태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곧 진정한 獨創의 원동력이 전통과 기존설의 정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융합적 ‘折衷’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으로, 석정이 근대 전환기에도 왜 여전히 전통 학문과 시각을 중시하였는가를 이해하는데 유효하게 참고될 수 있다. 둘째, 석정은 『시경』 해석의 타당성여부와 내원을 세밀하게 추적하려는 면모를 보였는데, 이는 특정 주석가의 해석을 맹신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석정은 해석자(주석자)의 인식 맥락에 초점을 두어 『시경』 해석의 同異를 변별하였다. 주석의 是非, 正誤에 대한 판단보다는, 주석자가 왜 이렇게 주석하였는지에 대한 의식의 흐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시경』 해석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儒家의 經과 經學의 범주는 전통학문의 전개 과정에서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 정치, 사상, 문화의 가치변화, 요구에 따라 변화를 거쳤으며 이러한 변화자체가 전통 학술 내부의 변화와 혁신, 확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전통시대에서 近代로의 전환 과정에서 經學의 작용을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들 또한 경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들과 근대 정치·학술사상을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가령 湯志鈞의 경우, ‘托古改制’를 주장한 康有爲, ‘舊學爲體, 西學爲用’을 주장한 張之洞, 今文 齊詩說을 인용해 ‘以革政挽革命’을 주장한 章太炎, 今文의 ‘微言大義’를 발양해 전제정치를 비판한 魏源 등을 짚어내었다. 그러나 그는 근대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이 전통 경학을 엮어 새로운 특징들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정치계가 이를 이용하여 사상계를 옴아매었다고 말함으로써, 近代經學을 ‘浸’과 ‘衰退’로 바라보았다.⁵⁷⁾ 18, 19세기의 ‘傳統經學’의 변화에 주목한 張壽安은 清代에 전통경학이 六經에서 二十一經에 이르는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經書의 數目과 經目을 增刪하는 과정을 근대 초기 전통유학의 내부에서 ‘지식확장’이 조성한 ‘典範의 轉移’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시기의 十三經은 이미 지식계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에 대한 요구를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典範을 요구하게 되었다. 史書, 緯書, 算學書, 字學書 및 『楚辭』, 『荀子』 등이 일약 經目の 반열에 오른 것은, 경학 내부에 지식의 분화가 출현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小學, 史學, 文學, 사상 등의 학술영역에

57) 湯志鈞, 『近代經學與政治(中華近代文化史叢書)』, 中華書局, 1989/1995, 24~36면.

서 지식의 독립성을 세우고자 하였음을 드러낸다.⁵⁸⁾고 함으로써 經學의 분화와 재구성에서 근대 전환기의 경학의 전환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두 논자의 논리에 의거하면, 근대 전환기의 경학 해석은 학술사에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외에는 정치, 사상사와 유의미한 견해를 제시할 때 주목되는 경향을 지닌다. 이는 기존 경학의 해석구도와 구성 체재를 따르는 경학 해석은 근대 전환기의 유의미한 의의를 지니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접근, 다른 각도에서는 또 다른 해석과 의의가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근대전환기의 전통학문이 어떻게 轉變되었는지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온 만큼 근대 동서양의 학문을 논의한 석정의 학문은 다양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한 까닭에 석정의 시경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근대 전환기의 경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와 이어질 수 있다.

1900년대 초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국가 패망의 고통과 미증유적인 시대의 격변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절실함을 지녔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통 경학연구를 전통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직면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원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까닭에 경학사에 있어서는, 격변의 시기에 진보적인 사상가가 經學을 통해 변혁과 변화를 제창한 경우가 먼저 주목을 받게 되고, “문화사상의 변천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경학의 영향과 작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일”에 더욱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⁵⁹⁾

석정의 『시경』 연구는, 그 표면적인 연구 방식을 보았을 때는 변혁과 변화의 색채가 그리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근본으로 돌아보는 방법이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되듯, ‘경학’을 ‘근본’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앞을 지향하는 변혁’보다는 ‘뒤를 지향하는 회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물질문명,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물질과 사물자체에 대한 폭넓은 지식축적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조각’화된 지식들이 우리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박학다식한 지식축적만으로는

58) 張壽安, 「從“六經”到“二十一經”十九世紀經學的知識擴張與典範轉移」, 張壽安主編, 『晚清民初的知識轉型與知識傳播』,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8, 8면.

59) 湯志鈞, 『近代經學與政治(中華近代文化史叢書)』, 中華書局, 1989/1995, 4면.

가장 이상적인 단계에 다다르기 어렵게 되었다. 시대의 불확정성에 휩쓸리지 않고 정체성과 비판적 대응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대인식과 시야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석정 이정직의 경학, 시경학의 가치는 현재의 과거 계승, 지식의 융합,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의 ‘비판적 교섭’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식정보의 源流를 추적하고 해석자를 중심으로 지식 변천의 맥락을 검토하여 타당성과 가치를 지닌 지식을 재구성하고자 한 석정의 『시경』 접근 방식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예측불가의 미래를 앞둔 우리들에게 여전히 시사점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毛氏 傳, 鄭玄 箋, 孔穎達 疏, 『毛詩注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2014
- 毛氏 傳, 鄭玄 箋, 孔穎達 疏, 朴小東 譯, 『譯註 毛詩正義』(1), 傳統文化研究會, 2016/2017
- 鄭玄 注, 賈公彥 疏, 彭林 整理, 『儀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朱熹,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 金堤文化院, 2001, 學藝社
- _____, 『詩經日課』, 문중소장본
- 심경호,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 湯志鈞, 『近代經學與政治(中華近代文化史叢書)』, 中華書局, 1989/1995
- 구사회, 「석정 이정직 시론의 형성 과정과 문예론적 검토」,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 김영진, 「연석산방(시집·문고·별집) 미정초와 간본 석정집 수록작 비교」, 『석정 이정직 서거 110주기 학술대회 발표집: 석정 이정직 학문과 예술의 학술사적 위상』, 국립전주박물관·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11.19
- 노평규, 「石亭 李定稷의 儒敎思想에 관한 研究」, 『韓國思想史』(釋山韓鍾萬博士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원광대학교출판국, 1991
- 심경호, 「石亭 李定稷과 『시경』」,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 이승용,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과 시의식」, 『온지논총』 52, 온지학회, 2017
- 張壽安, 「從“六經”到“二十一經”十九世紀經學的知識擴張與典範轉移」, 張壽安主編, 『晚清民初的知識轉型與知識傳播』,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8

Sökcchöng Lijöngjik's Theory *on the Book of Songs* —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the Three Volumes of *Shigyöngilgwa*

Kim, Su-kyung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Sökcchöng's writings related to *the Book of Song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ception of *the Book of Songs* by analyzing of the three volumes of *Shigyöngilgwa*(詩經日課) which have not been made public yet.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ommentators' intention has a very important weight in Sökcchöng's commentary on *the Book of Songs*, and the related interpretation has a unique approach angle. From a hermeneutic angle, the significance of Sökcchöng's perception of *the Book of So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s of *the Book of Songs* in its historical context, Sökcchöng paid attention to grasping the grounds and origins of the succession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Book of Songs*. In this process, Sökcchöng wanted to find the value of Zhuxi's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Songs* in its 'eclectic character' rather than in its 'originality'. This view is in stark contrast to the academic attitude that emphasizes its original side and rejects its opposite side. This is attributed to the compromise through precis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radition and existing theories, which can be effectively referenced in understanding the reason why Sökcchöng still valued traditional learning and perspective even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Second, Sökcchöng's approach to trace the validity and origi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Songs* is significant in that he pursued an academic approach that did not blind or reject the interpretation of specific commentators. Third, Sökcchöng differentia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Songs* by focusing on the context of the interpreter(or commentator)'s perception. It is considered to be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Songs* in Korea in that he showed interest in capturing the

flow of the interpreter's consciousness about the way he commented, rather than in judging whether the commentator's contents were right or wrong.

Key Words : Sŏkchŏng Lijŏngjik, *Shigyŏngilgwa*, *Shijŏnilgwa*, *Shigyŏng*, *the Book of Songs*, hermeneutics